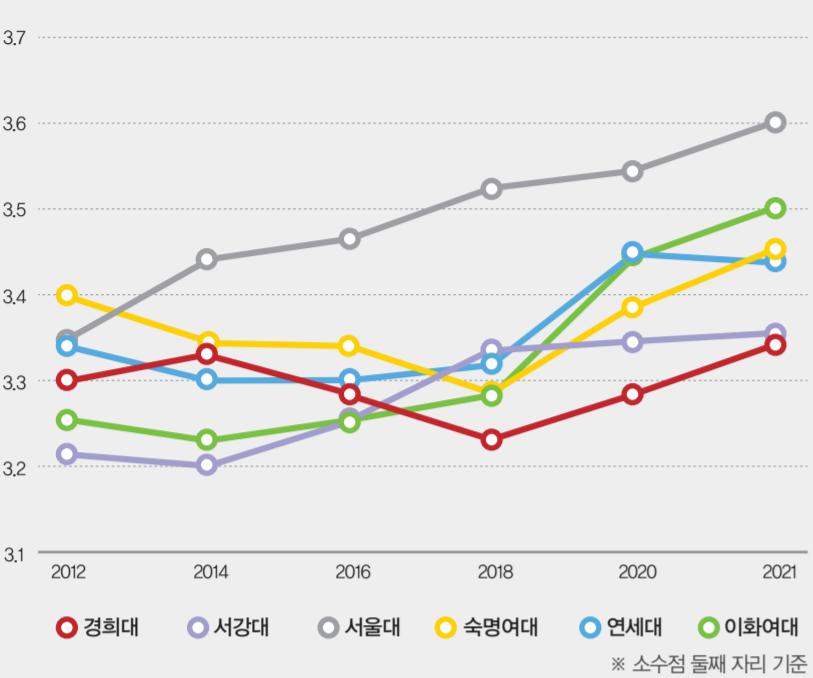


6 기획-학점표준화 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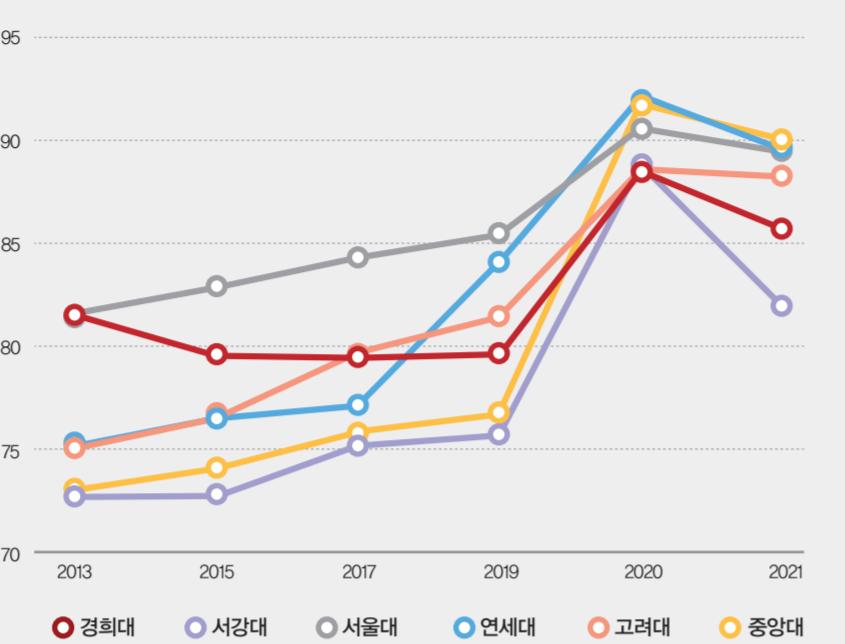
4.3 환산대학 졸업평점 추이



대학	2012	2014	2016	2018	2020	2021
경희대	3.3	3.3	3.2	3.2	3.2	3.3
서강대	3.2	3.2	3.2	3.3	3.3	3.3
서울대	3.3	3.4	3.4	3.5	3.5	3.6
숙명여대	3.4	3.3	3.3	3.2	3.3	3.4
연세대	3.3	3.3	3.3	3.3	3.4	3.4
이화여대	3.2	3.2	3.2	3.2	3.4	3.5

4.3 환산대학 졸업평점 추이와 재학생 B 이상 학점 비율

재학생 B 이상 학점 비율



대학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경희대	82.4	79.9	79.1	79.3	88.1	85.9
고려대	75.3	76.8	79.4	81.7	88.2	87.9
서강대	73.1	73.5	75.1	75.3	88.6	82.6
서울대	82.2	83.4	84.4	85.3	90.9	89.4
연세대	75.7	76.8	77.3	84.1	92	89.6
중앙대	73.8	74.5	76	76.8	91.7	90

※ 소수점 첫째 자리 기준

‘학점 잘 주는 대학’에서 ‘학점 불리한 대학’으로 학점표준화 제도 개정 금물살타나

김경민 기자 elude12@khu.ac.kr
이진구 기자 ijk6348@khu.ac.kr

**총학생회 학점표준화 제도
개선 나서
개정 논의 10년만**

10년 전 2012년, 우리학교는 학점 표준화 제도를 개선해 시행을 앞뒀다. 당시 학점표준화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우리학교가 이른바 ‘학점 잘 주는 대학’으로 불릴 정도로 학점인플레이션(학점인플레이션)이 높은 대학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학교는 주요 사립 대학 7곳(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중 평균 성적 A0 이상인 학생의 비율이 전체의 41.94%로 1위, B0 이상 인 학생의 비율이 전체의 82.13%로 1위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우리학교 주요대학 중 학점인플레이션 1위, 대학주보 1522호(2012.09.10).)

기성 언론을 중심으로 대학가 전반의 학점인플레이션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우리학교가 학점인플레이션 대표 사례로 지목되자 우리학교는 2009년 학점표준화 제도 변경 전체 학점 평균을 B0(3.0) 수준에 안을 내놨다. 상위 40% 이내 학생에게 B+를 부여하는 학점표준화 제도를 A는 상위 30%, B는 상위 70%로 확장해 학점인플레이션(학점인플레이션)이 높은 대학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학교는 주요 사립 대학 7곳(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그러나 최근 학점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론은 180도 바뀐 모양새다. 학생들 사이에서 우리학교는 ‘학점

잘 주는 대학’이 아닌 학점 안 주는 대학’이라는 자조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는 타 대학보다 낮은 학점으로 취업 및 로스쿨 등 진학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대면 수업으로 성적평가 방식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회귀하면서 학생들의 ‘상대평가’로 평가되는 학점 불안이 커지자 종학도 적극적인 개선 요구에 나섰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은 지난 22일 서울캠 소통 간담회에서 “학점표준화 제도로 인해 다른 대학에 비해 학점 취득에 불필요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대학에 성적평가 방식의 수정을 요청했다.

보수적인 성적평가 기조를 취해왔던 대학도 종학의 요구에 대해 “취

학교명	주요 신 성적평가방식 · 제도	내용
연세대	S/U (Satisfactory/Unsatisfac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 이상: S / CO 미만: U P/F와 유사 제1전공 승인자 중 소속학과 이외의 타전공 과목 학기당 6학점, 총 18학점 이내
서울대	타 학과(부) 전공 교과목 성적평가방법 선택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F방식과 S/U방식 중 선택 1,159개 교과목 대상
성균관대	성취중심 절대평가 교과목 및 수업 절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강생 중 비전공자 있는 경우 절대평가
	C/L (Cross-Lis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로 다른 전공 간 융합교육에 초점 성취중심 절대평가 교과목 및 수업에 해당

타 대학 성적평가방식

역전된 데에는 실제로 우리학교의 학점이 타 대학에 비해 불리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취업·진학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점도 학생들의 불안을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됐다. 우리신문이 대학정보공시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우리학교의 B학점 이상 재학생 비율은 82.2%로 서울대에 이어 *서울권 대학 29개교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이듬해에는 82.4%로 서울대를 제치고 서울권 대학 중 B 이상 학점 비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3년을 기점으로 우리학교의 B학점 비율은 2015년 79.9% 2019년 79.3% 등을 기록하며 절대평가 도입 이후 언론을 중심으로 대학가 전반의 학점인플레이션에 비판을 받고 있어 제도로 학생들의 전공성적 B+이상 누적 비율은 45.6%로 전국 대학 중 가장 낮았다. 당시 동 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학인 이화여대는 74.4%로 우리학교와 비교하면 약 30%나 높았다. 서울권 대학 평균인 62%와 비교해도 격차가 현저히 벌어졌다. 우리학교는 2013년을 기점으로 우리학교의 B학점 비율은 2015년 79.9% 2019년 79.3% 등을 기록하며 절대평가 도입 이후 언론을 중심으로 대학가 전반의 학점인플레이션에 비판을 받고 있어 제도로 학생들의 전공성적 B+이상 누적 비율은 45.6%로 전국 대학 중 가장 낮았다. 당시 동 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학인 이화여대는 74.4%로 우리학교와 비교하면 약 30%나 높았다. 서울권 대학 평균인 62%와 비교해도 격차가 현저히 벌어졌다. 우리학교는 2013년을 기점으로 우리학교의 B학점 비율은 2015년 79.9% 2019년 79.3% 등을 기록하며 절대평가 도입 이후 언론을 중심으로 대학가 전반의 학점인플레이션에 비판을 받고 있어 제도로 학생들의 전공성적 B+이상 누적 비율은 45.6%로 전국 대학 중 가장 낮았다. 당시 동 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학인 이화여대는 74.4%로 우리학교와 비교하면 약 30%나 높았다. 서울권 대학 평균인 62%와 비교해도 격차가 현저히 벌어졌다. 우리학교는 2013년을 기점으로 우리학교의 B학점 비율은 2015년 79.9% 2019년 79.3% 등을 기록하며 절대평가 도입 이후 언론을 중심으로 대학가 전반의 학점인플레이션에 비판을 받고 있어 제도로 학생들의 전공성적 B+이상 누적 비율은 45.6%로 전국 대학 중 가장 낮았다. 당시 동 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학인 이화여대는 74.4%로 우리학교와 비교하면 약 30%나 높았다. 서울권 대학 평균인 62%와 비교해도 격차가 현저히 벌어졌다. 우리학교는 2013년을 기점으로 우리학교의 B학점 비율은 2015년 79.9% 2019년 79.3% 등을 기록하며 절대평가 도입 이후 언론을 중심으로 대학가 전반의 학점인플레이션에 비판을 받고 있어 제도로 학생들의 전공성적 B+이상 누적 비율은 45.6%로 전국 대학 중 가장 낮았다. 당시 동 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학인 이화여대는 74.4%로 우리학교와 비교하면 약 30%나 높았다. 서울권 대학 평균인 62%와 비교해도 격차가 현저히 벌어졌다. 우리학교는 2013년을 기점으로 우리학교의 B학점 비율은 2015년 79.9% 2019년 79.3% 등을 기록하며 절대평가 도입 이후 언론을 중심으로 대학가 전반의 학점인플레이션에 비판을 받고 있어 제도로 학생들의 전공성적 B+이상 누적 비율은 45.6%로 전국 대학 중 가장 낮았다. 당시 동 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학인 이화여대는 74.4%로 우리학교와 비교하면 약 30%나 높았다. 서울권 대학 평균인 62%와 비교해도 격차가 현저히 벌어졌다. 우리학교는 2013년을 기점으로 우리학교의 B학점 비율은 2015년 79.9% 2019년 79.3% 등을 기록하며 절대평가 도입 이후 언론을 중심으로 대학가 전반의 학점인플레이션에 비판을 받고 있어 제도로 학생들의 전공성적 B+이상 누적 비율은 45.6%로 전국 대학 중 가장 낮았다. 당시 동 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학인 이화여대는 74.4%로 우리학교와 비교하면 약 30%나 높았다. 서울권 대학 평균인 62%와 비교해도 격차가 현저히 벌어졌다. 우리학교는 2013년을 기점으로 우리학교의 B학점 비율은 2015년 79.9% 2019년 79.3% 등을 기록하며 절대평가 도입 이후 언론을 중심으로 대학가 전반의 학점인플레이션에 비판을 받고 있어 제도로 학생들의 전공성적 B+이상 누적 비율은 45.6%로 전국 대학 중 가장 낮았다. 당시 동 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학인 이화여대는 74.4%로 우리학교와 비교하면 약 30%나 높았다. 서울권 대학 평균인 62%와 비교해도 격차가 현저히 벌어졌다. 우리학교는 2013년을 기점으로 우리학교의 B학점 비율은 2015년 79.9% 2019년 79.3% 등을 기록하며 절대평가 도입 이후 언론을 중심으로 대학가 전반의 학점인플레이션에 비판을 받고 있어 제도로 학생들의 전공성적 B+이상 누적 비율은 45.6%로 전국 대학 중 가장 낮았다. 당시 동 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학인 이화여대는 74.4%로 우리학교와 비교하면 약 30%나 높았다. 서울권 대학 평균인 62%와 비교해도 격차가 현저히 벌어졌다. 우리학교는 2013년을 기점으로 우리학교의 B학점 비율은 2015년 79.9% 2019년 79.3% 등을 기록하며 절대평가 도입 이후 언론을 중심으로 대학가 전반의 학점인플레이션에 비판을 받고 있어 제도로 학생들의 전공성적 B+이상 누적 비율은 45.6%로 전국 대학 중 가장 낮았다. 당시 동 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학인 이화여대는 74.4%로 우리학교와 비교하면 약 30%나 높았다. 서울권 대학 평균인 62%와 비교해도 격차가 현저히 벌어졌다. 우리학교는 2013년을 기점으로 우리학교의 B학점 비율은 2015년 79.9% 2019년 79.3% 등을 기록하며 절대평가 도입 이후 언론을 중심으로 대학가 전반의 학점인플레이션에 비판을 받고 있어 제도로 학생들의 전공성적 B+이상 누적 비율은 45.6%로 전국 대학 중 가장 낮았다. 당시 동 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학인 이화여대는 74.4%로 우리학교와 비교하면 약 30%나 높았다. 서울권 대학 평균인 62%와 비교해도 격차가 현저히 벌어졌다. 우리학교는 2013년을 기점으로 우리학교의 B학점 비율은 2015년 79.9% 2019년 79.3% 등을 기록하며 절대평가 도입 이후 언론을 중심으로 대학가 전반의 학점인플레이션에 비판을 받고 있어 제도로 학생들의 전공성적 B+이상 누적 비율은 45.6%로 전국 대학 중 가장 낮았다. 당시 동 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학인 이화여대는 74.4%로 우리학교와 비교하면 약 30%나 높았다. 서울권 대학 평균인 62%와 비교해도 격차가 현저히 벌어졌다. 우리학교는 2013년을 기점으로 우리학교의 B학점 비율은 2015년 79.9% 2019년 79.3% 등을 기록하며 절대평가 도입 이후 언론을 중심으로 대학가 전반의 학점인플레이션에 비판을 받고 있어 제도로 학생들의 전공성적 B+이상 누적 비율은 45.6%로 전국 대학 중 가장 낮았다. 당시 동 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학인 이화여대는 74.4%로 우리학교와 비교하면 약 30%나 높았다. 서울권 대학 평균인 62%와 비교해도 격차가 현저히 벌어졌다. 우리학교는 2013년을 기점으로 우리학교의 B학점 비율은 2015년 79.9% 2019년 79.3% 등을 기록하며 절대평가 도입 이후 언론을 중심으로 대학가 전반의 학점인플레이션에 비판을 받고 있어 제도로 학생들의 전공성적 B+이상 누적 비율은 45.6%로 전국 대학 중 가장 낮았다. 당시 동 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학인 이화여대는 74.4%로 우리학교와 비교하면 약 30%나 높았다. 서울권 대학 평균인 62%와 비교해도 격차가 현저히 벌어졌다. 우리학교는 2013년을 기점으로 우리학교의 B학점 비율은 2015년 79.9% 2019년 79.3% 등을 기록하며 절대평가 도입 이후 언론을 중심으로 대학가 전반의 학점인플레이션에 비판을 받고 있어 제도로 학생들의 전공성적 B+이상 누적 비율은 45.6%로 전국 대학 중 가장 낮았다. 당시 동 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학인 이화여대는 74.4%로 우리학교와 비교하면 약 30%나 높았다. 서울권 대학 평균인 62%와 비교해도 격차가 현저히 벌어졌다. 우리학교는 2013년을 기점으로 우리학교의 B학점 비율은 2015년 79.9% 2019년 79.3% 등을 기록하며 절대평가 도입 이후 언론을 중심으로 대학가 전반의 학점인플레이션에 비판을 받고 있어 제도로 학생들의 전공성적 B+이상 누적 비율은 45.6%로 전국 대학 중 가장 낮았다. 당시 동 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학인 이화여대는 74.4%로 우리학교와 비교하면 약 30%나 높았다. 서울권 대학 평균인 62%와 비교해도 격차가 현저히 벌어졌다. 우리학교는 2013년을 기점으로 우리학교의 B학점 비율은 2015년 79.9% 2019년 79.3% 등을 기록하며 절대평가 도입 이후 언론을 중심으로 대학가 전반의 학점인플레이션에 비판을 받고 있어 제도로 학생들의 전공성적 B+이상 누적 비율은 45.6%로 전국 대학 중 가장 낮았다. 당시 동 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학인 이화여대는 74.4%로 우리학교와 비교하면 약 30%나 높았다. 서울권 대학 평균인 62%와 비교해도 격차가 현저히 벌어졌다. 우리학교는 2013년을 기점으로 우리학교의 B학점 비율은 2015년 79.9% 2019년 79.3% 등을 기록하며 절대평가 도입 이후 언론을 중심으로 대학가 전반의 학점인플레이션에 비판을 받고 있어 제도로 학생들의 전공성적 B+이상 누적 비율은 45.6%로 전국 대학 중 가장 낮았다. 당시 동 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학인 이화여대는 74.4%로 우리학교와 비교하면 약 30%나 높았다. 서울권 대학 평균인 62%와 비교해도 격차가 현저히 벌어졌다. 우리학교는 2013년을 기점으로 우리학교의 B학점 비율은 2015년 79.9% 2019년 79.3% 등을 기록하며 절대평가 도입 이후 언론을 중심으로 대학가 전반의 학점인플레이션에 비판을 받고 있어 제도로 학생들의 전공성적 B+이상 누적 비율은 45.6%로 전국 대학 중 가장 낮았다. 당시 동 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학인 이화여대는 74.4%로 우리학교와 비교하면 약 30